

초기 벨칸또 발성법을 이용한 발성치료 증례 보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음성언어의학연구소

서 동 일 · 최 홍 식

맑은 소리와 일관성 있는 노래 소리를 추구하는 벨칸또 발성법(belcanto technique)은 5세기 동안 훌륭한 성악가를 배출한 방법이었으며 삐스또끼(Pistocchi)는 가창의 과용과 남용으로 완전히 노래 소리가 망가진 베르나끼(Bernacchi)를 3년 동안 발성치료 후에 원상 회복시킨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연구자들은 가수결절(singer's nodule)이라 불리울 정도로 가창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 긴장성 발성 장애인 성대결절환자 1명, 성대접촉이 불완전한 노인성 성대보잉환자 1명, 호기배출장애(Release Disorder)인 가창장애자 1인, 성구장애(Register Disorder)인 가창장애자 1인을 초기 벨칸또 발성법을 이용하여 치료한 결과 주관적 듣기평가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도 Dr. Speach 프로그램 중 Jitter, Shimmer, Noise Normal Energy 등 비교치의 유의한 변화가 있었으며 말하는 기본주파수(speaking fundamental frequency)는 치료자가 추정하는 성종의 범위 안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었기에 보고합니다.